

# “직업의 모든 것 체험하세요”

## ■5일까지 ‘광주직업교육박람회’

실업교육의 위상 제고와 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광주직업교육박람회’가 오는 5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로 네 번째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우리 함께해요! 꿈·희망·미래’라는 주제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실습작품 전시, 각종 경진대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먼저 창업 동아리 발표대회에는 광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며 동아리 활동을 벌이고 있는 30개 팀이 참가해 창업 동기·아이템·과정, 마케팅 등에 대한 비법을 공개한다. 이들의 작품은 행사기간 중 학생벤처창업관에 전시된다. 학창 시절의 창업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졸업 후 창업에 성공한 경영자들도 졸업생 창업관에 자

**실업교육 위상 제고·취업종류 확대  
전시회·직업정보 사냥대회 등 다양**

신들의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후배들을 격려한다. 실업계 고교생들이 정성껏 만든 83점의 작품도 전시된다. 모형 태양광 자동차, 원격제어를 이용한 집 온도제어, 전자 주사위, 기능형 로봇 등이다. 이외 축구 로봇 제작·버블 매직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학습관이 운영되며 기술·가정 교과와 관련된 기능분야에 특장·특성이 있는 중학생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중학생 기술·가정경진대회’도 열린다. 노동부 광주 종합고용지원센터도 박람회 기간 중 진로탐색관을 마련, 직업정보사냥대회·직업심리검사·취업클리닉코너 운영 등을 통해 초·중·고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시교육청 김석중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학생들의 진로 개발 역량을 높이는 직업체험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2일 개막된 ‘광주직업교육박람회’의 체험학습장을 찾은 학생들이 광주 금파공과 제과·제빵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케이크 등을 모양 쿠키를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 오늘 퇴임하는 김 원 본 광주시교육감

# “공립高 바로서야 ‘실력광주’ 산다”

김원본(71) 광주시교육감이 3일 퇴임식을 하고 48년 동안 몸담았던 교육계를 떠난다.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 교사로 시작해 지역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 자리까지 오른 뒤 재선의 임기를 마쳤다.



▲71세 ▲장성군 ▲광주제일고·서울문리사범대학출 ▲1958년 담양 한재중에서 교사 시작 ▲진도서중 교감·광주시교육청 장학사·광주시교육청 중등교과과장·광주여고교장·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재임 중 저적이려면?  
▲부교육감 4년, 교육감 8년 등 최근 12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며 ‘실력 광주’의 전통을 확립했다. 그 결과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자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교단신진화·정보화교육을 맨 먼저 추진해 전국 교육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낸 것도 자부심을 느낀다.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8년 동안 한결같이 추진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선호하고 공립학교를 기피하는 이른바 ‘사고공저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게 아쉽다. ‘실력 광주’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립 고등학교교장에 보다 많은 학교운영재정권을 부여, 심화반 운영·야간자율 학습·방과후 교육 등을 활성화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선 교육감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입기 후반 광주시교육청이 시스템이 아닌 인치(人治)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과장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주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감이 다 한다는 것이었다. 오래 재임하다 보니 내 주장이 압도적이었지 않았느냐는 반성이 든다. 조직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 독선은 안 된다.  
-후임 교육감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안순일 교육감 당선자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잘 할 것으로 믿는다. ‘실력 광주’의 전통을 이어가 학부모들의 희망과 염원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  
-광주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 기회되면 강단 서고 싶어

▲교육은 지역의 미래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단체, 학부모,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광주 지자체의 재정사정이 워낙 열악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못했다.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를 반영,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희망의 끈이 보인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퇴임 후 계획은.  
▲기회가 있으면 강단에 서고 싶다. 배울 수 있는 모임을 찾아 계속 공부할 생각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광주과기원에 연구동·슈퍼컴퓨터 기증

###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2일 광주과학기술원에 ‘금호관’이라 이름 지은 연구동과 슈퍼컴퓨터 등의 장비를 기증하기로 했다. 김성산 금호산업 고소사법부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허성관 광주과학기술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금호관’ 기증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996년에 광주과학기술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75평, 연면적 619평 규모의 ‘금호정보통신연구소’를 완공해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명칭을 ‘금호관’으로 변경하고, 이

연구동에 대한 모든 사용 권한을 광주과학기술원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또 기존에 계열사의 연구소에서 과학계산용으로 사용하던 슈퍼컴퓨터를 네트워크 장비 등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에 기증했다. 이 슈퍼컴퓨터는 32개의 CPU를 장착하고 메모리32기가와 저장용량 3.4TB를 지닌 시스템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의 행정용 시스템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고급 인재를 산실인 광주과학기술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증했다”며 “앞으로도 광주과학기술원과 상호 교류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한국여성학회 목포서 추계학술대회

### 유형숙 목포대교수 여성학회장에

한국 여성학계의 중진들이 목포에서 여성학의 세계화와 토착화를 논의한다. 한국여성학회는 3~4일 목포대 교수회관에서 ‘한국여성학의 다변화와 지식소통의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갖는다. 특히 대회기간 중 유형숙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가 지방대 교수로서 처음으로 학회장에 취임한다. <인터뷰 20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2005년 세계여성학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한국 여성학: 세계여성학대회 그 후’로 주제 강연을 한다. 주제강연에 이어 토론회 형식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성학

회의 역대 회장들이 여성학의 제도화, 학제간 문제, 지역화, 여성학과 국가정책 문제 등을 논의한다. 조 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이해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현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조 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수에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학과 지역여성의 경험’이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이외 지역여성연구의 과제와 전망, 성연구와 섹슈얼리티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운동의 과제와 여성학적 설명, 광주·전남 지역여성운동의 전망 등 5개 분과별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회도 진행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

## 납품비리 예방못해 죄송

-광주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지난 2004년 고교생들의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고, 신실학교 납품비리를 미리 예방하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교육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 모든 교직원에게 배를 꾸는 자세로 비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예산집행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공개입찰제도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 35년 전통의 북교당 한약방이 연구 개발한

# 장생·득충 오가피 식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한 수험생, 직장인, 주부, 운동선수 부모님과 친지에게 좋은 선물  
※ 득충오가피 판매가 - 30팩 : 5만원 / 60팩 : 10만원

**장생식품 TEL.(062)385-3303, 362-6900** **사군내리점 모집**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35번지

### 동의보감·본초학에서 효능증명

- 두충(杜仲)**  
맛은 맵고 쓴맛은 따뜻하며 긴, 신장에 적용하여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태이를 안정시킨다. 경기의 쇠퇴로 인한 요통, 무릎이 차고 시린 증상과 몸경, 조루,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강장 효과가 있어 몸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과 간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또한 등과 허리, 다리의 통증, 생식기능의 증진에도 효과적이다.
- 오가피(五加皮)**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며, 긴과 신장에 적용한다. 밖으로는 풍습을 없애고 경락을 잘 소통하게 하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몸이 차리고 아픈 증상이나 근육이 약하고 힘이 없는 증상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부종과 각기 등에 이용된다.
- 화신(希仙)**  
간장과 신장을 보, 하여 중풍, 고혈압을 예방하고 팔 다리 처림과 관절 냉통(冷痛)과 허리 근육을 강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한다.

# 11월 3일은 “학생의날”입니다

##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일을 다시 한번 기림시다

1929년 10월 광주로 통학하는 열차속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같은 열차를 타고 있던 한국인 남학생이 이를 밀리면서 싸움이 벌어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본학생은 기만두고 한국인 학생만 일방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광주에 있는 학생이 들고 일어났으며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변했습니다. 그 날이 11월 3일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대 불 대 학 교

성 화 대 학

동 아 인 재 대 학

목포과학대학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념들을 위해 고개속에서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하게 봅시다.